

大學圖書館大會 會議錄



大學圖書館大會

日時：1963年 9月13日 午前 9：30

場所：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圖書館

一. 開會式(司會：主務委員 白麟)

1. 國民儀禮

國旗에 對한 敬禮

愛國歌 奉唱

殉國先烈 및 戰歿軍營에 對한 默念

2. 開會辭：大學圖書館部會長

金桂淑

3. 祝辭：文教部長官 李鍾雨

代讀 社會敎育課長 申淳甲

祝辭：서울大學校 總長 權重輝

代讀 學生處長 심상황

4. 經過報告：主務委員 白麟

5. 議長選出

議長(金桂淑)：豫定時間이 30分이 지났습니다. 자리가 不便하시겠지만 좀 참아주시기를 바라며, 먼저 오신분들을 위하여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여러분이 發表하여 주신 論題들에 對하여 앞으로의 大學圖書館의 發展을 위하여 진지하게 檢討, 論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司會는 主務委員이신 白麟先生이 맡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司會(白麟)：제가 오늘의 司會를 맡아 같이 討議코져 합니다. 그러면 어제 發表된 議題中에서 適當한 問題들을 討議하여 建議案件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議長(金桂淑)：國立大學校의 附設圖書館

職制은 서울大學校만이 許用되고 地方의 他國公立大學은 職制가 認定되어 있지 않음으로 圖書館運營에 甚 큰난한 실정입니다. 서울大 附屬圖書館의 實情을 소개한다면 建物과 施設의 不足으로 對外奉仕活動은 물론 圖書의 整理保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特히 參考閱覽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여 圖書館에 機能을 다하지 못함은 勿論 專門의인 參考司書가 訓練되어 있지 않음으로 運營에 큰 難點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于先 專門의인 Reference Librarian의 教育을 위해서 外國派遣教育이 時急하다고 생각됩니다. 現在 奎章閣圖書는 하바드 延경학회로부터 援助를 받아 基本目錄作成을 64年 7月까지 끝낼 豫定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大 各單科 大學間의 資料交換 및 利用을 위하여 綜合目錄作成이 時急하며, 우선 社會科學系統만의 綜合目錄이라도 만들기를 지금 推進中입니다.

司會(白 麟): 各者의 自己圖書館 運營에 있어 困難한 問題가 있으면 共同討議함으로써 그 問題의 解決方法도 아울러 講究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全北大: 圖書購入에 있어 地方大學은 隘路가 많습니다. 國公立大學은 圖書購入에 있어 文教部의 公定換率指示에 依해서 購入케 되었으므로 現時勢대로 執行할수가 없습니다. 他大學校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仁荷工大: Unesco 쿠통을 利用해서 外書를 購入하면 低價格으로 購入할 수 있지만 時間에 浪費가 많습니다. 特히 定期刊物의 購入은 適期購入이 生命이므로, Unesco 쿠통 使用에 있어 便利한

方法을 文教部에 建議했으면 좋겠습니다.

高麗大(김한수): 圖協事務局을 통해서 Unesco 쿠통使用에 外貨를 各大學別로 直接配當하는 方法을 文教部에 建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울大農大(李택준): Unesco 쿠통使用에 있어 外國의 各社 및 各學會에 쿠통을 直接 보내면 書籍이 빨리 到着합니다. 이方法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全北大: 쿠통을 政府로부터 各大學校別로 直接 配當받기를 建議할 바에야 政府指定 쿠통率을 늘여서 配當하기를 添加해서 建議했으면 좋겠습니다.

朝大(金영우): 圖書館의 運營에 있어 機關長의 認識이 絕對必要함으로, 機關長 啓蒙을 위해서 어떤 會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13日 論議한 內容을 油印物로서 配布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司會(白 麟): 우리나라 現代圖書館의 運動은 光武10年頃부터 始되던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껏 一般에 認識이 되어있지 못하여 活潑한 奉仕活動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甚 유감입니다. 우리는 이 點에 特別히 留意하여 圖書館認識을 높이기 到 全力을 다하여야 할 줄 압니다. 論議된 內容은 速記錄으로서 協會誌에 실리게 될 것이오니 發言者는 먼저 自己의 所屬과 姓名을 明確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中央大(李기배): 圖書館에 있어 貸出圖書의 亡失分에 對한 어느 限度內에서의 控除를 法的으로 認定하여 주게끔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司會(白 麟): 財政法上 圖書는 消耗品이

아닌 備品으로 規定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은 困難할 줄 압니다. 앞으로 좀더 研究 檢討해서 適當한 救濟策을 마련하여야 될 줄 압니다.

東亞大(崔龍우): 本大學 圖書館의 隘路는 圖書貸出에 있어 未返納圖書가 많은 點입니다. 몇 個月 前부터 學生에게 貸出을 禁止시켰드니, 教授님 名儀로 圖書는 貸出하여 返納치 않고 있으니, 좋은 方法은 없겠습니까?

司會(白 麟): 圖書館은 奉仕를 第一主義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貸出制度에 對하여 合理的方法이 좀더 研究하셔서 閱覽者를 위한 奉仕活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淑大: 今般 讀書週間을 맞아 本圖書館의 行事로서 定期刊行物 展示會를 가지려 하오니 各大學校에서 出刊된 圖書를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國學大(朴창규): 逕信部長官에게 郵送圖書 紛失에 對한 改善策을 本大會名義로서 建議하고, 만약 그것이 改善되지 않을 경우 二次的으로 郵送圖書紛失의 證據를 捕捉하였다가 事務局을 통해 建議하고, 그레도 안될 경우 訴訟가지도 不辭하며, 郵送圖書의 迅速하고 正確한 配達을 行하게 하여야겠으며 各機關長의 圖書館認識을 시키기 위하여 本大會名義로서 建議文을 成案하여 보내기를 建議합니다.

(司會 舉手表決結果 滿場一致로 可決)

全南大: 各大學校에서 出刊되는 刊行物은 가급적이면 圖書館에서 總括하여 圖書館名의로 配付하도록 本大會에서 合意하기를 動議합니다.

(司會 舉手結果 滿場一致로 可決)

海軍大: 各刊行物이 圖書館으로 郵送되지 않고 各機關長의 앞으로 郵送되기 때문에 缺本이 많이 생김으로 이것을 防止키 위하여 協會名義로서 各機關長에게 앞으로의 機關誌發送은 圖書館앞으로 發送하여 줄것을 建議하기를 添加發言합니다.

全南大: 그것보다는 文敎部長官에게 直接 建議하여 刊行物의 適切한 配付를 依賴하는것이 좋으리라 생각하여 改議합니다.

(司會의 表決結果 否決)

서라벌大: 參考發言을 하겠습니다. 各機關誌 發刊處는 他機關誌 發刊處와 資料 交換을 하고 있음으로, 各大學校에게 依賴하는것 보다는 直接 發刊機關長에게 建議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仁荷工大: 本大學에서는 모든 刊行物은 圖書館에서 取扱합니다. 그러니 他大學도 이런 制度를 썼으면 합니다.

全北大: 外書購入에 있어 文敎部長官에게 購入價格比率(%)을 現實情에 맞는 比率로 높여 주기를 建議할 것을 動議합니다.

(司會의 舉手表決結果 滿場一致로 可決)

漢陽工大(金태웅): 今年度に 들어가서 私立大學에서는 學生一人當 二百원씩 圖書費로서 釀出하게 되었는데 이 圖書費를 機關長은 他費로서 轉用하여 쓰고 있으니 이것을 圖書費로서만 쓸 수 있게끔 強力히 監督하도록 文敎部長官에게 建議하기를 動議합니다.

國學大(朴창규): 文敎部指示書에 圖書費는 他費로서 轉用하여 쓰지못하게끔 但

畫가 添付되어 있음으로 建議할 性質에
것이 아니다. 나는 圖書費를 別度로 項
目に 넣어 自律的費用으로서 쓸 수 있겠
끔 建議하는 것이 더 效果的이라 생각
합니다.

漢陽工大(金태울): 學生自治會費는 學校
側에 마음대로 流用못하게 되었는데도
不拘하고 圖書費를 他費로 轉用코 있는
것이 私立大의 實情이니만큼, 文敎部에
建議하여 強力한 監督 및 監査下에서
圖書費의 適期支拂을 하겠끔 建議할 것
에 補充發言합니다.

全南大: 圖書費流用問題는 各機關長의 裁
量에 依한 自律的問題이기에, 文敎部長
官에 建議할 性質의 것이 아니라 생각
합니다. 現在 國公立大學校는 文敎部指
示대로 遂行하고 있으니 이에 該當이
되지 않을 압니다. 그러므로 建議를
구태여 한다면 私立大學校만에 名義로
서 하기를 개의합니다.

國學大(朴창규): 大學圖書館大會 開催에
目的은 個人으로서 行할수 없는 諸般難
問題들을 大會에서 討議講究하여 解決
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는줄 압니다. 그
러므로 國公立 私立間에 個人的인 利害
關係를 떠나서 文敎部長官에게 철저한
監督을 行할것을 建議하기를 바랍니다.
司會(白 麟): 動議와 改議가 들어왔습니
다. 그러면 改議부터 表決에 부치기로
하겠습니다.

(表決結果 改議否決로 動議가 滿場一
致로 可決됨)

東亞大: 圖書購入에 있어 税金控除를 財
務部長官에게 建議하기를 動議합니다.

司會(白 麟): 이點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點을 잘 알아서 建議하

여야 될줄 압니다. 發言에 심중을 期하
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大農大(李백준): 앞으로의 大學圖書
館의 發展을 위하여 本大會에 大學圖書
館 開發委員會같은 常設機關을 두어 이
곳에서 모든 問題들을 充分히 研究討議
한후 建議文같은것도 採擇하였으면 좋
겠습니다.

司會(白 麟): 좋은 發言을 하여 주셨습
니다. 日本에서도 昭和27년에 文務省은
大學圖書館 改善方案委員會를 두어 難
問題들을 研究改善케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委員會를 두어 大學圖
書館의 當面하고 있는 모든 難問題點을
研究檢討하여 適合한 事項들을 各機關
에 建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成大(李春熙): 圖書館大會에서 論議하고
建議하는 것이 얼마나 成果를 거둘지
疑問입니다. 그러니 大學圖書館이 봉착
한 諸問題를 研究檢討하여 強力히 解決
할 수 있는 研究機關으로서 大學단의
協議會를 組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러므로 지금 大學協議會의 組織을 위해
서 臨時發起準備委員會를 뽑기를 動議합
니다.

司會(白 麟): 그러면 어떤 方法으로 發
起委員會를 選出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
시오.

國學大(朴창규): 發起委員 選舉를 위하여
우선 白 麟先生과 李春熙先生이 論議
하여 委員會를 選出한후 全體會議에 認准
을 받기를 바랍니다.

本案을 채택하여 다음 委員會를 選出한후
發表함.

白 麟, 李春熙, 李載喆, 千惠鳳,
明在揮, 張一世 等 6名

全南大: 同數表決을 防止하기 위하여 6名 보다는, 7名으로 定했으면 좋겠습니다.

成大(李春熙): 本會에서 選出한 臨時委員은 大學協議會 發起委員을 選出할때 까지만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國學大(朴창규): 準備委員選出에 있어 지금 發表한 名單을 보면 綜合大學만으로 構成되었는데, 이것보다는 初級單科綜合別에 서울과 地方을 參작하여 委員構成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大田大(劉衡勝): 지금 選出한 委員은 臨時準備委員임으로 그렇게 세밀히 構成할 必要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全北大: 이런 重要한 問題는 미리 準備되었어야 할줄 믿는다. 오늘은 時間도 없고 미리 생각도 하지 않았은 問題이니 次後에 論議하기를 改議합니다.

同德大: 이問題는 이미 可決되었음으로 再論할 餘地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朴창규先生에 修正動意案에 對해서 直接 表決에 부치기를 바랍니다.

司會(白麟): 人選에 있어 各部別로 選出하자는 修正動意案에 對한 表決입니다.

舉手表決結果 反對9名, 贊成 20名으로 可決됨에 따라 再選出에 들어감.

司會(白麟): 再調整한 委員을 發表합니다.

정연석(慶北大), 김태울(漢陽大), 박창

규(國學初大), 朴熙永(外國大), 千惠鳳(東大), 유현승(大田大), 張一世(梨大), 白麟(서울大)

司會(白麟): 지금 發表한 委員에 對한 信任表決을 물기로 하겠습니다.

(滿場一致로 可決)

西江大: 昨年 總會때도 論議된 문제입니다만, 出版社에서 圖書販賣에 定札制, 割引制中 그 어느하나를 擇하여 주기를 出版協會에 建議하기를 바랍니다. 또한나는 文教部發刊 翻譯圖書에 있어 原書名 및 著者名을 標記하여 주도록 文教部に 아울러 建議하기를 動議합니다.

司會(白麟): 이 問題는 舉手可決로 表決하겠습니다.

(滿場一致로 可決)

議長(金桂淑): 時間關係로 이것으로 大學圖書館大會를 끝맺으려 합니다. 우선 오늘 여러 問題에 對하여 진지하게 討議하여 주신 여러先生任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採擇한 建議問題를 다시한번 速記하신분이 代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建議問題에 對하여 代讀—

各大學마다 특수事情이 있으시겠지만, 우리들이 協力하고 努力하여서 是正하고, 發展시켜 나가야 될줄 압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圖書館大會는 閉會합니다.

12:10分